

## LG產電(株), 배전자동화용 다회로 개·폐·접지 기술 KT마크 획득

LG產電(株)(代表：李鍾秀)가 “배전자동화용 다회로 개·폐·접지 기술”이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올해의 국산 신기술로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KT 마크를 획득했다.

이번에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마크를 획득한 배전자동화용 다회로 개·폐·접지 기술은 5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13명의 연구인력이 3년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를 비롯하여 CESI(이탈리아), KEMA(네덜란드) 등의 국내외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시험을 합격하였다. 또한 국내 14건의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해외 7개국에도 특허 출원중에 있다.

이 기술은 배전선로 계통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배전자동화용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에 이용된 기술로 배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조작하여 사고 구간을 신속히 분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배전선로의 사고 발생시 배전선로의 전력을 차단하고 보수 요원이 직접 사고 지점을 방문, 조치를 취하는 완전 수동식 시스템으로 사고 지역은 물론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최소한 15분에서 45분 정도의 정전 현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배전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가스절연 개폐기의 개발로 사고 지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 사고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정전시간을 무정전에 가까운 시간으로 단축, 정전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당 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나던 정전시간이 3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LG산전은 이번 배전자동화용 다회로 개·폐·접지 기술의 KT 마크 획득으로 그 기술 수준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용 가스절연 부하 개폐기의 매출도 향후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일진산전, 초고압 전력케이블 수원공장 준공

최근 일진산전(代表理事: 許鎭奎)이 지상 106m의 초고압 전력케이블 수원공장을 준공하고 지난 11月 20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허진규 그룹회장을 비롯해 통상산업부 한영수 생활공업국장, 한전 金世一 차장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에 준공한 '초고압 전력케이블 공장'은 일진그룹이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995년 12월 일진산업단지내에 있는 5만평의 부지에 첫 삽질을 한 이래 2여년만에 준공한 것으로,

동 건물은 연건평 7,000평의 초고압등과 지하 7m, 지상 106m의 초고층 타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공장의 설비는 핀란드의 노기야에서 시험설비는 스위스의 헤프리사등 세계 최고의 메이커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초고압케이블에 대한 생산, 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일본의 후루카와 유럽의 브루그케이블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기술자 및 기능공 확보는 물론 기술제

휴선에 기술연수등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 허회장은 "이번 초고압 케이블 공장은 세계 최고의 설비를 바탕으로 준공되어 한 차원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합전선업체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진산전은 일진그룹 계열사중 하나로 지난 1994년 4월 자본금 140억원에 설립되어 그해 대지 5만평, 건평 2,700평, 투자비 150억원 규모의 특고압전력케이블 공장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전력케이블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765kv 가공 송전선 및 절연전선과 중저압케이블, 초고압전력케이블 등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올해 530억원을 매출목표로 잡고 있는 일진산전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초고압케이블을 銅量 년 7,000톤의 규모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초고압케이블은 일진의 매출증대에도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LG電線(株), 루마니아에 통신케이블 대량 수출

LG電線(株)(代表: 權炆久)가 LG상사와 공동으로 루마니아에 통신케이블을 대량 수출한다.

LG전선과 LG상사는 최근 루마니아 국영 통신업체인 롬켈레콤社와 5천만달러 규모의 통신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통신케이블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다음달부터 '99년 7월까지 20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계약물량의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선이 공급하는 제품은 시내전화 및 가입자용 소구경 銅통신케이블 약 1만9천 km로 현재 전화회선 수가 1백명당 12회선에 불과한 루마니아 통신망 확충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루마니아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여타 동구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통신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榮和産業電機製作所, 해외시장 진출 모색

榮和産業電機製作所(代表: 孔虎泳)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ELECTRIC 인도네시아 '97」 전시회에 자사 제품인 MOF, CT, PT를 전시해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매 격년으로 열리는 인도네시아 전기계의 최대 종합전시회이며 우리나라의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견줄만한 행사로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4백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영화전기 제품만이 전시됐다.

특히 영화전기의 구자열 전무는 전시기간 중인 인도네시아 전력청의 요청으로 「변성기

기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 국내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해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했다.

영화전기는 전시기간동안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1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이달말에서 내달초경에 L/C(신용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변성기기 제조업체는 지난 '89년 처음 생산을 개시해 단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정기적으로 수출을 꾸준히 해온 영화전기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